

# 학폭 '철퇴'...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도 의무 반영

##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확정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된다.

또 학폭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퇴를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게 검정고시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을 거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적용받게 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지원 자격 배제 가능...학폭 조치 강도·유형 따라 감점 차등 적용

검정고시생도 학생부 제출 요구...졸업 후 학폭 삭제 '꼼수' 남아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사실상 모든 전형에 반영토록 했다.

단 어떤 전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날 배포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

생부에 학폭 관련 기록이 있는 수험생에 대한 전형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가 경미한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에 그쳤는지, 중대한 9호(퇴학)까지 이뤄졌는지 등 조치 강도·유형에 따라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각 대학은 서류평가에 포함된 공동체 역량, 도덕성 등 정성평가 영역을 통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일부러 자퇴를 해 대입 불이익을 회피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소송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뒤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도 학폭 조치 사항을 숨길 수 있는 '꼼수'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 학폭 조치 사항이 삭제되는데, 이 때문에 고3 수험생과 이른바 재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년법상 보호 처분, 범죄 경력은 아직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 취지와 어긋난다"며 "학폭예방법, 소년법은 근거법의 규율 목적·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년법상 처분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www.adiga.kr)에 올라와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심야어린이병원 9월 1일 개원

광주기독병원, 평일·휴일 자정까지 경증 소아환자 진료...심야약국도

자정까지 진료하는 광주 첫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이 9월 1일 공식적으로 문을 연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기독병원은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자정까지 경증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그동안 광주에는 밤 9시 이후 늦은 밤, 휴일에 운영하는 어린이 병원이 없어 부모들은 응급실을 이용하며 장시간 대기 등 불편과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문을 여는 시간을 앞두고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약순환도 반복됐다.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문여는 시각은 평일 오후 6시 30분,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10시다. 문 닫는 시각은 자정까지로 같고, 휴게 시간은 정오부터 2시간이다.

광주시와 광주기독병원은 지난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 기간 평일 평균 21명, 주말 45명 환자가 이용했다.

광주시는 광주기독병원 인근 2개 약국을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당직 약국(공공 심야 약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소아청소년과 부속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전문 진료는 물론 응급실 연계진료도 가능해져 의료 취약시간대 소아청소년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위기를 맞은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강기정 시장은 "취약 시간대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을 해소할 공공의료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며 "응급실을 찾아야 했던 어린이와 보호자들의 애다는 마음과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허용하라" 교육부가 오는 9월 4일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집단 연가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3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 교육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는 화환 10여개가 놓여져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아동 놀이환경 조사 '놀이터 의사' 모집

광주 서구, 아동·성인 110명

광주시 서구는 아동 놀이환경을 개선할 시민조사단 '놀이터 의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놀이터 의사는 광주시 서구 내 놀이터의 접근성과 환경현황, 놀이기구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 및 희망사항을 담은 처방전(요구서)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9월 23일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서구가 조성한 어린이놀이터 55개소를 방문·조사해 처방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놀이터 의사 활동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되며 참가자에게는 조사 도구와 지도 등 '웰컴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활동 이후에는 결과공유회도 개최하고, 전문가관에서 취합해 백서를 만들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아동 55명과 성인 110명으로 아동은 서구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성인은 아동의 놀 권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놀이터 1곳당 아동은 1회, 성인은 5회씩 방문하고 조사해야 한다.

놀이환경진단 웹사이트(withplay.sc.or.kr) 또는 이메일(hy5418@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가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 광주 '스쿨존 야간 50km' 1곳 뿐

가변형 시스템 없어 대부분 불가...경찰 줄속 시행 발표에 혼란

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광주에 적용되는 구간은 단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송원초등학교 앞 1곳 뿐이다.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439곳 중 나머지 438곳은 기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가 유지

된다.

지난 29일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광주경찰청에 지역 내 시행 범

위, 대상을 확인한 결과 남구 송암로 송원초등학교 앞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제한이 유지된다.

송원초 인근은 지난 4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시범 운영 구역으로 선정돼 이미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 50km가 적용 중이다. 다른 곳에는 가변형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탓에 당장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학부모 등 인근 거주민 의견 수렴, 광주경찰청 교통안전 심의 등을 통해 가변형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